‘장타자’ 김대현 시즌 첫 우승

매경오픈, 2위 김경태에 4타차…KPGA 상금랭킹도 1위

장타자 김대현(22·하이트)이 한국프로골프의 ‘기대주’에서 ‘강자’로 우뚝 섰다.

김대현은 9일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 골프장(파72·6964야드)에서 열린 원아시아투어 제29회 GS칼텍스 매경오픈 4라운드에서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와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김대현은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조에서 우승을 다투는 압박감 속에서도 이글 1개, 버디 5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는 실력을 뽐냈다.

상금 1억6000만원을 받은 김대현은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2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서 최고의 한해를 예고했다.

김경태도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잡았지만 퍼트가 흔들리면서 보기 5개를 쏟아내 아쉽게 2위(14언더파 274타)에 머물렀다.

3라운드를 김경태와 공동 선두로 마친 김대현은 전반에 보기없이 2타를 줄이며 앞서 나갔지만 본격적인 승부는 13번홀(파4)부터 시작됐다.

12번홀까지 3타가 뒤졌던 김경태는 13번홀에서 100야드를 훨씬 넘게 남기고 친 두번째샷을 바운드도 없이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이글을 잡았다.

김경태는 순식간에 김대현과 격차를 1타로 좁혔고 이후 양보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14번홀(파5)에서도 김대현과 김경태 모두 버디를 잡아 팽팽했던 승부는 16번홀(파5)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김대현은 16번홀에서 아이언으로 친 두번째샷을 홀 3m 앞에 떨어뜨린 뒤 부드럽게 이글로 연결시켰다.

김경태도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김대현과 타수차는 2타로 벌어지고 말았다.

김대현은 17번홀(파3)에서도 부담되는 파퍼트를 놓치지 않았고 힘겹게 추격하던 김경태는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리고도 파퍼트를 홀 옆으로 흘려보내는 실수를 저지르며 3타가 뒤져 3년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여유있게 18번홀 그린 위에 오른 김대현은 퍼트로 첫번째 퍼트를 홀 바로 앞에 볼을 붙인 뒤 가볍게 파로 마무리, 그린 주변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우승 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최고의 순간 김대현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 골프장에서 열린 원아시아투어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후 두 손을 번쩍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윤 18개월만에 ‘우승 입맞춤’

‘러시앤캐시 채리티’ 10언더파 아마추어 한정은 2타차 제쳐

김혜윤(21·비씨카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우승했다.

김혜윤은 9일 제주도 오라컨트리클럽(파72·6560야드)에서 열린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J골프 시리즈(총상금 5억원)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08년 11월 MBC투어 2008 왕중왕전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처음 우승한 지 1년 반 만에 통산 2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혜윤은 지난해에도 KLPGA 투어에서 톱10에 5번 들었으나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올해도 지난달 열린 롯데마트 여자 오픈에서 8위에 오르는 등 정상 주변을 맴돌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 공동 2위에 이어 2라운드 공동 선두에 오르는 등 3일 내내 리더보드 윗줄을 지킨 김혜윤은 이날 15번홀까지 한정은(18·중문상고)과 치열한 선두 싸움을 펼쳤다.

승부는 16번과 17번홀에서 갈렸다. 중간합계 9언더파로 공동 선두였던 한정은이 16번홀에서 1타를 잃으면서 김혜윤에게 기회가 왔다. 1타차 선두로 올라선 김혜윤은 17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2타차로 달아나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웨스트우드 선두 질주…최경주 주춤 24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3R

유럽의 강호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컵을 향해 질주했다.

웨스트우드는 9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코스(파72·721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사흘 연속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14언더파 202타로 단독 1위 자리를 지킨 웨스트우드는 1998년 프리포트-맥더모트 클래식 이후 12년만에 PGA 투어 우승을 노린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랭킹 1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미켈슨은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공동 11위(9언더파 207타)까지 뛰어올랐다.

선두와 5타차가 나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역전 우승도 가능하다.

더욱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타를 줄이는데 그쳐 중간합계 4언더파 212타로 공동 45위까지 떨어지면서 미켈슨은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한편 전날 톱10에 진입했던 최경주(40)는 버디 3개를 보기 3개로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를 적어내 공동 24위(7언더파 209타)로 떨어졌다.

양용은(38)은 공동 43위(5언더파 211타)로 밀렸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세계 톱 10 눈앞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6·세종고)가 두 번째 시니어대회에서 또 순위를 끌어올리고 세계 톱10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손연재는 9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인근 코르베유 에손에서 끝난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대회 개인종합에서 줄(25.400점), 후프(25.425점), 볼(25.950점), 리본(25.625점) 4종목 합계 102.400점을 획득, 참가선수 54명 가운데 11위에 올랐다.

한편 손연재와 함께 출전한 김윤희(19·세종대)도 4종목 합계 97.800점을 획득, 20위로 선전하면서 한국 리듬체조의 패기를 세계에 알렸다.

손연재와 김윤희의 점수를 합쳐 200.200점을 획득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전통적으로 강한 동유럽 국가에 이어 전체 7위에 오르며 약진했다. /연합뉴스

세계장애인태권도대회 내일 러시아에서 개막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주최하는 제2회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11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다.

WTF는 유빌레이니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이날 하루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5대륙, 21개국에서 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제1회 대회는 작년 6월10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6개국, 3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WTF는 “3대륙, 15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대회를 두 번 이상 개최하면 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라면서 “태권도가 2016년 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WTF는 또 이번 세계장애인태권도대회를 맞아 ‘태권도 정신과 장애인’을 주제로 연맹 홈페이지(www.wtf.org/photo)에서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베이징 유도 금 中 퉁원 도핑으로 2년 출장정지

베이징올림픽 유도 여자 78kg 이상급 금메달리스트 퉁원(중국)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국 역도·레슬링·유도 관리센터는 최근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퉁원에게 2년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랭킹 6위인 퉁원은 앞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8강에서 김나영(대전시서구청)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 체급 강자다. /연합뉴스

‘테니스 황제’ 페더러 굴욕

에스토릴오픈 4강 탈락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가 시즌 두 번째로 출전한 클레이코트 대회에서도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페더러는 9일(한국시각) 포르투갈의 에스토릴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에스토릴오픈(총상금 45만유로·6억6000만원) 단식 준결승에서 알베르트 몬타네스(34위·스페인)에게 0-2(2-6 6<5>-7)로 졌다.

이날 실책을 무려 48개나 쏟아낸 페더러는 특히 2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5-2로 앞서다가 내리 5실점 하며 무너졌다. /연합뉴스